

보도

“혁신적 변화보다는 학생요구 수렴에 방점”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 칼리지 신입 학장에 김성수 교수가 임명됐다. (사진 = 최명규 기자)

후마 신입 학장 인터뷰 - ② 국제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학장에 김성수(우주과학)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이상과 현실을 고려해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학생들이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낄 교양 교육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학장은 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와 학교 간 갈등에 대해서 서울캠퍼스 후마 이영준 학장과 비슷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학장은 “결국 학교와 교수회의의 모두 교육의 질 향상을 바라는 것은 똑같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후마 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학장은 “후마는 아시아 10대 교양대학으로 선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양대학이다”라며 “혁신적인 변화, 제도약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학생들의 요구와 불편을 받아들이는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배분과목의 개설, 강좌 수 증설 같이 세세한 부분에서의 개선은 있었지만 거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일부 계열에서 제기하는 ‘교양 이수 학점이 높아 전공 역량이 약화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학장은 “후마 이수 학점은 외국대학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이고 국내의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높은 편이 아니다”라며 “전공 교

수님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을 알겠지만 전공과 교양 이수 학점의 비율은 지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학장은 이공계열의 교양 과목을 늘리겠다는 뜻을 보였다. 김 학장은 “인문계열에 교양 과목이 치중돼 있다는 의견을 받아 들어 ‘박벤에서 문명까지’가 탄생했듯이 교양이 인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문과목과 이공과목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내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라 밝혔다.

특히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필수 교양으로 지정될 SW기초과목에 대해 김 학장은 “교양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후마 출범 당시에는 인문학 교육에 중점을 뒀지만 소프트웨어 지식이 필수적인 지식이 됐다면 이를 교양이라 여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W기초과목 신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앞으로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 교수와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김 학장은 “교양 과목 2개가 새로 개설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학장은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양 과목을 재미있게만 생각하지 말고 학생 자신을 위해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술발전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후마의 중핵 교과들을 통해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 우리가 사는 곳에 대한 이해,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를 넘는 장기연체 ... 전공도서 씨가 마른다

안나연 기자 yeonnaahn@khu.ac.krkr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장기연체된 도서는 203권에 달한다. 연체된 도서들의 반납률은 지난 4월에는 19.2%, 5월에는 21.2%, 6월에는 20.3%, 7월에는 22.2% 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반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가장 많이 연체된 <경영학 원론>은 경영학과 전공 도서로 463일 동안 연체되었다. 그 뒤를 이은 <스쿠트 팬츠>, <<어패럴메이킹>여성복 재킷> 역시 의상학과 전공도서다. 각각 330일 동안 연체되었다. 물론 모든 장기연체 도서가 전공도서인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가장 오래동안 연체된 책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로 순수 문학 도서였다. 그러나 3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가장 많이 연체된 도서가 전공도서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나 의학도서관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연체된 책은 <생약학>으로, 약과학과 전공도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서적이 대학생들의 용돈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기연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주천(무

역학 2017) 씨는 “전공책을 다 사니 12만원이 넘는다. 이는 이틀치 아르바이트 일당에 해당한다”며 부담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물론 책에 쓰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 달치 휴대폰 비용을 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새책기가 되면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보연(간호학 2017)씨 역시 “전공책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야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하다”며 “필수로 구매하는 서적인 만큼 부담스럽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김기영(문헌정보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양심적인 대출을 호소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도서관 규정을 통해 비양심적인 장기 연체를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는 ‘지정도서’ 제도를 언급하며 “전공 도서를 구매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해결책이 됨과 동시에 장기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도서제는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교재를 교수의 요청에 의해 정해놓으면 3시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만 대출 가능하며 연체 시 시간당 백원의 높은 연체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연세대는 지난 2000년부터 지정도서 제도를 도입했다. 연세대에서 현재 지정도서로 등록된 책은 415권이다. 연세대 이용자통합서비스팀은 “도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의 경우 모든 연체도서에 대해 연체일과 같은 기간만큼 대출과 열람실 및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30일 동안 연체한 경우, 책 반납 이후에도 30일 간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장기연체를 해도 30일이 ‘최장 도서관 이용 정지 기간’인데다 연체료가 2만원 이상으로 부과되지 않아 전공도서에 대한 장기연체가 빈번하다. 물론 도서관 측에서는 문자 및 전화로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장기 연체자는 재학 증명서를 비롯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홍유진 직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학생 개개인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전했다. 흥 직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장기연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SW교양 ‘조심스레’ 전교생 필수이수 추진

(2018 학년 이후)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SW중심대학사업단)은 내년 신입생부터 전공에 상관없이 ‘SW기초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W기초교육으로 내년 신입생은 SW기초교과 6학점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SW기초 교육은 기존 배분이수 소프트웨어 관련 교과목들과 추가로 개설되는 2~3개의 배분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SW기초교과 필수이수에 따라 2018학번 이후부터는 배분영역 선택에서 추가 고려 사항이 생긴다. 현재 배분이수교과는 7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SW기초교과가 있는 영역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영역 선택에 있어 비교적 자유롭지 못하다.

SW기초교과는 컴퓨터실습이 있는 SW코딩과 그렇지 않은 SW교양으로 나뉜다. SW코딩과 SW교양 이수 조건은 각 단과대

학별로 정해질 전망이다. SW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 단장은 “신입생들이 SW코딩과 SW교양 중 어떤 것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각 단과대학마다 다르다”며 “차후 단과대학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기초과목 개설은 SW중심대학사업의 일환이다. 조 단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전공학생이 본인의 전공과 소프트웨어를 연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단장은 SW기초교과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전교생이 들어야 하는 수업인 만큼 연간 5,200명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 1학기에 1,559명의 학생이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을 이미 수강했다”며 “서울캠퍼스 2과목, 국제캠 3과목만 추가 개설하면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SW기초교과는 소프트웨어 교양 전임교수 서울·국제캠 각각 2명, 산학협력중점교수 4명, 학술연구교수 4명과 컴퓨터공

학 전임교수가 담당할 계획이다. 조 단장은 “시간강사 채용과 온라인 강의개설로 강의 수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W기초교과는 그 대상이 전교생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위원회의 주된 논의 사안이 될 전망이다. 국제캠 학사지원과 한상 계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9월 말 후마니타스칼리지 요청으로 ‘교육과정위원회’에 교양교육과정개편이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이에 대한 개설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 김성훈 학술연구교수는 “SW기초교과에 대한 교과과정 편성 등 아직 많은 부분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는 ‘컴퓨터적 사고와 문제해결’ 2학점을 필수교양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 104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3,980명의 학생을 수용했다. 교수 14명이 강의담당했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7.09.11.(월) ~ 10.20.(금)

■ 접수기간 : 2017.08.14.(월) ~ 2017.09.08.(금)

Level Test

■ 영어회화 : 09.05(화), 09.06(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09.05(화)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레벨		Ted Talk	Business Special Lecture Screen English Academic Writing Workshop
수강료		150,000원	12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 초급2
수강료		150,000원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월, 수)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2 / 초급3 / 고급1
수강료		150,000원	
스페인어	시간	오전반 (화, 목) 07:45~08:45	오전반 (월, 수) 07:45~08:45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90,000원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수)	오후반 19:00~20:20 (월, 수)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베트남어	시간	오후반 18:00~19:20 (월, 수)	오후반 18:00~19:20 (화, 목)
레벨		초급1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수강료		150,000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불법복사, 복스캔 NO!

전전한 저작권 문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응원합니다!

저작물 불법 복제

지식자산을 훔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 복제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저작권,
우리의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정품 콘텐츠는 <저작권OK>지정업체에서 구매하세요.

☎ 대표 전화 1588-0190
홈페이지 http://www.kcpra.or.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조합연합회